

일본 대지진

“국내 원전 지진·쓰나미 대책 있나”

국회 日 대지진 전방위대책 긴급논의 국내 경제 영향·원전 안전 집중 점검

국회는 14일 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 유관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국내 원자력시설 안전 문제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집중 점검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이날 오전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과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외교교통통일위·지식경제위·기획재정위도 긴급회의를 가졌다.

교육과학기술위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기준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주문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지진 발생이 1978년~1996년 연평균 16회에서 1997년~2010년 연평균 41회로 급증했다”며 “30년 전 마련한(원전 안전) 기준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범정부 차원에서 설계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중국 쓰촨(四川) 대지진도 판 중앙에서 일어난 만큼 ‘바로 밑 지진도 6.5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원전 설계기준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30여년 전 지어진 고리 원전과 월성 지역이 활성단층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일본 서해

상에서 강진이 발생할 경우 100분 정도 지나면 한반도가 쓰나미에 의해 침수된다”며 지진뿐 아니라 쓰나미에 대비한 원전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외교통상통일위의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지진방안 마련과 일본 내 교민들의 안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한국마

크가 짙힌 생수와 식품·라면·담요 등 필요한 물품을 초기에 보내야 일본인이 고맙게 생각하고 감동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구상찬 의원은 “서울시의 수돗물 ‘아리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했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전염병의 확산이 우려된다”며 “방역대책도 심도 있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 대지진이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관계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피해 여부 및 안전성 현황 등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일본이 자국 원전의 안전성을 호언장담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며 “이번 대지진을 계기로 국내 원전의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일본 대지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숨겨진 리스크까지 면밀히 살펴서 대처해야 한다”며 “한·일 간의 아픈 과거역사에만 연연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인류애를 발휘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대 한도로 일본국민의 슬픔을 어루만지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에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국내대책 점검을 위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문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靑, 국내원전 안전점검 비상회의

청와대는 14일 일본의 대지진과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 효과와 함께 국내 원전 안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을 위해 출국함에 따라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일본 원전 폭발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주변국 확산을 비롯한 국내 영향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피해 현황과 국내에 미칠 경제적, 환경적 파급 효

과와 앞으로 여진 발생에 따른 일본의 추가 원전 피해 전망 등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또한, 수석비서관 회의 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현재까지 피해 상황과 대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현재 일본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福島)와 가까운 울릉도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고 있으나 평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 “방사능 대비태세 갖춰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4일 “일본 대지진이 원전 폭발을 야기하고 방사능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발 빠르게 구조대를 파견한 정부 조치에 치하 드리며 일본에 최대한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또 이날 주한 일본 대사관을 찾아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일본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손 대표는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 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구조대원을 현지에 보낸 우리 정부에 감사하고 민주당도 피해 복구에 힘과 마음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제1야당 대표가 주한 일본 대사관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손 대표의 방문은 참사를 겪은 우방국에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하는 차원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광 주민들 “우린 괜찮은지..”

日 원전 붕괴에 불안감...원전측 “시설점검 강화 문제 없어”

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福島) 원전 1·3호기가 폭발하며 상당량의 방사능이 누출된 가운데 원전 6기가 가동 중인 영광원전 주변 주민들도 원전 안전성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53·영광읍)씨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가장 안전하게 운전한다는 일본마저 자연의 대재앙에 힘입어 무너졌다”며 “우리나라라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법은 없으니 다 같이 걱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 원자력본부 측은 원전 1~6호기는 지진 규모 6.5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돼 있고, 운전 정지기준(규모 5.6) 초과시 발전을 수동정지한 후 관련 절차(비정상·비상운전)에 따라 안전화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자로 내에서 직접 증기를 발생시키는 ‘비대형수로’ (BWR) 방식인 일본과 달리 증기를 생성하는 원자로계통과 터빈계통이 분리된 ‘가압경수로’(PWR)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민들은 과거 영광원전이 방사능누출과 열전달관측관 이탈 등 잦은 고장사례를 예로 들며 원전의 최악 상황에 대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5호기 잦은 발전고장 원인이 전동기(모터)안에 들어 있던 드라이버 때문으로 밝혀진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방사선 비상계획은 백색, 청색, 적색이상 등 3단계로 분류돼 있고 이번 후쿠시마 원전은 적색에 해당한다. 원전은 사고 발생시 적색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단계별 제어시스템을 가동하고, 해당 상황에 맞게 직원과 주민들에 대한 행동지침을 하달하게 된다.

영광원전 환경감시센터 박용섭(45) 소장은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방사능 방제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안전성과 이용을 면에서 어느 원전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번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시설점검을 강화하고 지진 대응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광 흥농읍 계마리 일원에는 지난 1986년 8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6기가 가동중이며,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12%를 공급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한 ‘日 지진대책위’ 구성

한나라당은 14일 일본 대지진과 관련, 당 내에 ‘일본 지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교포 안전문제와 경제적 여파 등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안상수 대표 주재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안형환 대변인이 전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외교교통통일위·기획재정위·국토해양위·교육과학기술위·행정안전위, 당 국제위·재해대책위·재외국민협력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총망라해 지진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진대책위원장은 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3선의 조진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일본 교포의 안전 대책과 일본 대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종합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학교 87% 지진 무방비

“1만5912개 초·중·고 내진설계 안돼”

한나라 박영아 의원

대표적 다중 이용 건축물이면서 재난 시 대피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학교 건물의 87%가량이 지진에 무방비고, 이 중 절반 이상은 지진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1만1293개 초·중·고 교의 내진 설계 대상 건물 1만8329동 중 1만5912동(86.8%)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이 건물들에 대해 교과부가 지진 피해 예상 수준을 전수 조사한 결과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건물은 전체의 54.5%인 8486동에 달했다.

이러 ‘중규모 피해 가능’ 3064동(19.6%), ‘소규모 피해 가능’ 2939동(18.8%), ‘경미한 피해 가능’ 1075동(6.9%)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재난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는 안전 확보가 우선시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강진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내진 구조를 보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일건강 발목 펌프 운동봉

당신은 약을 전혀 먹지않고 불노장생(무병장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노력만 하면 확실히 가능합니다.

1일 3,000회(소요시간 약 30분) = 10,000보 걷는 효과!!

2011년 신제품 목침 겸용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10cm, 길이 30cm, 높이 7cm 반원목침에 스프링과 소음진동방지대가 장착되어 있어 취침 시는 목침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기상하면 발목펌프 운동봉으로 평생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등록 제30-0465075 발목펌프 운동기구

- 목재 운동봉 가격 : 39,000원 무료배송!!
- 목침 겸용 가격 : 45,000원 무료배송!!

TEL 062-672-2002
H. P 010-7510-2000
광주광역시 남구 전월동 258-1 2층

온라인결제 • 광주은행 125-121-002455 • 농협 601154-52-335334 • 예금주: 서영선

정품! 정량!! 난방유

SK 삼보주유소

마일리지카드 발행 (인적사항 기재 없음)

명품 외부 세차! 깔끔 내부 세차!

차량 무료점검 서비스 시행
Speed Mate와 업무제휴

난방유 할인판매

- ▶ OK로고 있는 전 카드 할인혜택
- ▶ 한드럼당 4천원~6천원 할인
- ▶ OK캐쉬백적립

내부세차 합니다

산수오거리에서
지산(법원) 큰사거리 지나 200m우측

062-224-5189
011-666-7899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께 올릴 수 있음은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